

2016년 미국 Shasta College SummerProgram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이유*	학번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캘리포니아 Redding
파견대학	Shasta College	기간	2016.06.26. ~ 07.16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대학은 우리학교와 같이 도시와는 거리가 먼 곳에 위치해있어서 식당이나 쇼핑몰을 찾아가려면 반드시 차를 타고 나가야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자체 규모가 넓고, 기숙사나, 식당, 수영장 등 학교 시설이 전반적으로 좋기 때문에 주중에 학교 안에서 생활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p>
Hospitality Class	<p>제대로 된 관광경영에 대한 수업을 듣게 될 기대를 가지고 수업에 임한다면 조금은 실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업자체가 조금은 쉽게 진행되고 인원에 따라 조를 나누어서 토론하는 방식처럼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솔직히 큰 도움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영어를 잘 알아듣지 못하여서 일단 의사소통 자체가 조금은 어려웠습니다. 처음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면 갈수록 답답하게 느껴지고, 제 영어가 그렇게 형편없나,, 라고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수님들께서는 잘 알아듣는걸 보니 그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모로 별로인 수업이었습니다,</p>
Computer Class	<p>일단 컴퓨터수업 교수님자체가 너무 친절하시고, 학생들 수준에 맞게 수업을 진행하셨고, 매 수업시간마다 수업과제를 제출해야하는데,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1대1로 친절히 알려주셔서 컴맹인 저도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수업과제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일정 상 엑셀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배울 수 없었지만 실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을 기본적인 엑셀사용법과 wordpress라는 웹사이트 제작에 관해서도 배워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p>

필드트립	<p>일단 모든 필드트립에 있어서 추가비용은 들지 않았습니다. (단, 개인 기념품, 간식비 등 제외) 필드트립은 다양하게 구성되어있는데, 그중에는 호수에서 수영하는 액티비티도 포함되어있으니 수영복은 반드시 챙겨 가지고, 샌프란시스코는 레딩에 비해 훨씬 기온이 낮아서 여행 중 추위에 떨 수도 있으니 반드시 긴 반팔을 챙겨 가지길 바랍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레딩의 날씨는 40도를 육박할 정도의 높은 기온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습도가 높은 편이 아니라서 찌는 더위가 아닙니다. 하지만 낮에 나갈 때는 선크림을 꼭 바르고, 선글라스를 항상 착용하고 다니기를 권장합니다.</p>
안전	<p>우리나라처럼 밤늦게 까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밤늦게 시내를 돌아다닌다던가 숙소를 벗어나는 행위는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p>
숙소	<p>기숙사 시설이 정말 쾌적하고 좋아서 지내는 데에 불편할 점이 전혀 없었습니다.</p>
식사	<p>학교식당 (<input checked="" type="checkbox"/>) 외부식당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아무래도 주중에는 학교 수업 때문에 학교에 계속 있다 보니 학교식당을 주로 이용하게 되는데, 신선한 채소와 과일들이 매일매일 제공되어서 다소 기름지고 짠 음식이 있더라도, 함께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p>

교통	<p>레딩은 교통이 정말 안 좋습니다.</p> <p>교수님들께 부탁하면 시내까지 바래다주시긴 하지만, 매번 부탁드리기가 미안해서 저와 제 친구들은 학교에 1시간에 1번씩 오는 시내버스나 콜택시를 불러 이용하기도 하였습니다.</p>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지출 금액과 현지에서 추가 지출한 총 지출내역을 써 주세요.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왕복 항공료	1,560,300	국내 납부
보험료	16,750	국내 납부
쇼핑	400,000	체크카드 사용
식비	200,000	체크카드 사용
합계	2,177,050	

5. 출국 전 준비사항

저는 가기 전에 현지에서의 휴대폰 사용을 위해서 유심칩을 미리 구매하여 갔는데, 확실히 시내에 나갈 때 같이 간 친구들과 연락하기에도 용이하고, 비상시에 현지 교수님들과 연락하기에도 쉬워서 유심칩을 사서 미국에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사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학교에서 생긴 지 얼마 안 된 신생 프로그램인 것을 잘 알고 신청을 했기에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치는 별로 높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학교 수업이 내 예상과 맞지 않아도 크게 절망하지 않았고, 나름 재미있게 3주를 잘 보내다 온 것 같습니다. 일단 살면서 미국의 레딩 이라는 도시를 알고서 찾아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 일 수도 있는데,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난생 처음 들어본 도시를 가보았다는 것 자체가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단순한 여행이 아닌, 미국의 대학교에서 3주간 기숙사 생활을 하며 잠시나마 미국의 대학생이 되어 공부를 하고 왔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잇을 수 없는 추억이 된 3주였습니다. 미국에서의 3주는 단순히 관광경영에 대해서 배워 온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학교생활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심각한 컴맹이었던 저는 이번 프로그램의 컴퓨터 수업을 통해서 계속 미뤘던 컴퓨터 공부를 시작해볼 예정이고, 지금은 영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올리브공장 필드트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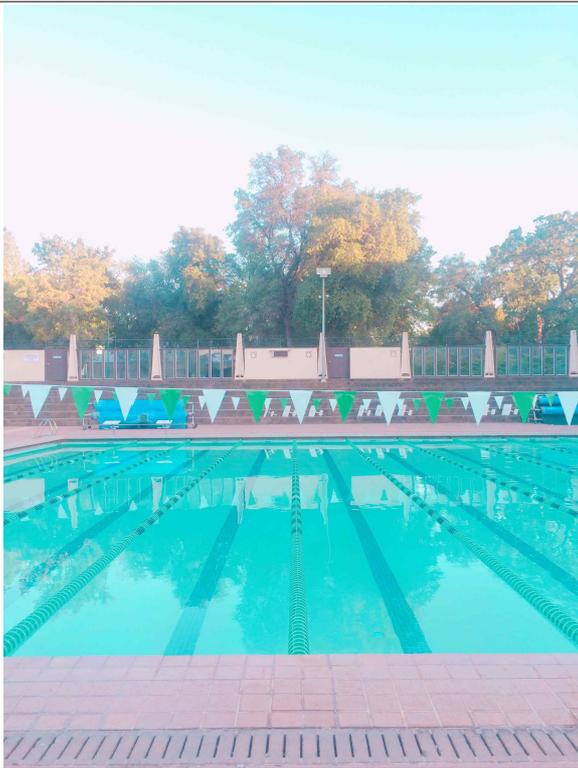
위스키타운 레이크 필드트립



버니 폴 필드트립



샌프란시스코 필드트립



교내 수영장



수료증